

‘차이’를 넘어선 ‘우리’의 탄생

— 김의정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서 언 주 *

차 례

1. 1960년대 여성작가들의 약진과 김의정
2. 다문화적 차이의 인식을 통한 탈경계적 주체의 출발
3. 내면의 ‘목소리’로 주조한 반성적 연대의식과 ‘우리’의 탄생
4. 『목소리』의 의의

국문초록

1960년대는 여성작가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등장하는 시기이다. 본고는 1961년에 등단하여 1990년대 중반까지 꾸준히 작품 활동을 전개한 여성작가 김의정에 주목하고자 한다. 김의정의 1960년대 작품경향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목소리』는 한국전쟁 속에서 진정한 주체의 ‘목소리’를 찾아가는 여성들의 성장소설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이 작품에서 주목해 볼 점은 작가가 한국전쟁의 상황을 여러 문화가 혼종되는 다문화적 상황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다. 작가는 이런 다문화적 상황 안에서 ‘차이’를 인식하는 가운데 탈경계적 주체가 탄생할 수 있으며 서로 다른 사상, 이념, 국적 등이 경계를 허물고 화합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작가의식은 이념을 극복할 수 있는 여성주의적 대안의 새로운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다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인간에’를 실천하는 데서 ‘우리’라는 ‘반성적 연대’가 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목소리』에서 보여주는 시선은 그간의

* 국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전쟁을 소재로 한 작품들에서 취하고 있는 인식과는 색다른 김의정만의 독특함으로 주목해 볼 수 있다.

핵심어: 1960년대 문학, 한국 전쟁, 여성 성장소설, 다문화적 차이, 인간애, 탈경계적 주제, 반성적 연대, 여성주의적 대안

1. 1960년대 여성작가들의 약진과 김의정

1960년대 우리 문단에는 여성작가들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실제 1950년대 중반 이후부터 여성작가들의 수가 대폭 늘어나게 되는데 이는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들이 다양한 등단 경로를 통해 문단에 등장하였고 부쩍 늘어난 출판시장은 이런 여성작가들의 글쓰기 욕구를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¹⁾ 그렇지만 이런 활발한 활동에 비하여 여성작가들에 대한 당대의 평가는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여성잡지의 붐으로 인해 여성작가의 활약은 증대되었지만 그 작품성은 그리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주된 이유였다. 또한 대중성에 초점을 맞춘 통속적이고 신변잡기적인 소재 포착과 섹스와 센타리즘에 집착하는 작품성향, 사회적인 것에 무관심한 태도 등이 여류가 가진 한계라는 것이다.²⁾ 이 시기 여성작가들을 본격적으로 연구한 박정애는 1950~60

1) 이 시기에 등장하는 여성작가들로는 잡지/문예지 추천으로 등단한 박경리, 구혜영, 송원희, 한말순, 손장순, 이정호, 최미나, 송숙영 등과 신문사 장편소설 현상공모로 문단에 등장한 이석봉, 이규희, 김의정, 전병순이 있다. 그리고 신춘문예로 등장한 정연희, 이세기, 박순녀 등도 당시 활약하였던 작가이다. 이와같은 내용은 김양선, 『전후 여성문학 장의 형성과 여원』, 한국여성문학학회, 『여성문학연구』 18호, 2007. 12 참조.

2) 김우중은 『여류작가에게 주는 고인』에서 60년대에 여류문인들이 인기를 얻고 활동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박경리, 박계형류의 ‘눈물의 문학’, 전병순, 정연희의 ‘섹스’

년대 여성문학연구는 한국문학연구 성과 중 가장 소외된 분야라고 정리하며 이 시기 여성작가들의 서사 전략은 “소설 작품 속에서 거대한 민족적 불행의 기억·광범위한 영역에서의 실존주의적 허무주의·정치적 실천성의 부재와 일상에의 집착·낭만적 사랑의 추구와 숙명론 등 공통적인 특질로 수렴되는 경향을 보인다.”며 이를 여성작가가 ‘여류’로 주변화되는 한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³⁾

이러한 당대의 여류에 대한 폄하와 배제의 시선 속에서도 1961년 『경향신문』 장편소설 현상모집에 『인간에의 길』로 등단한 후 1990년대 중반까지 70여 편 가량의 소설을 꾸준히 썼던 김의정⁴⁾은 어느 정도 남성 평론가들의 호감을 얻었던 작가로 보인다. 당대 주요 논객이었던 김팔봉

소계 문학이 대중의 흥미와 야합하였고 또 여자라는 미명에 대한 사회적 동정이 더해졌다고 이야기한다. 이는 여성잡지 붐과 여류문인들의 잡글 활동 등이 한 몫을 한 것이며 60년대 문학은 소란하고 화려했던 반면에 문인들이 돈과 인기애 굴종하는 것이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김우중, 『여류작가에게 주는 고언』, 『여원』, 1970. 1월호.

3) 박정애, 『여류의 기원과 정체성: 50·60년대 여성문학 연구』, 한국학술정보, 2006, 201~205쪽.

4) 김의정은 1930년 7월 14일 평안남도 강서군에서 출생하여 서울 경기여고를 졸업하고 이화여대 의과대학에 적을 두었다가 숙명여대 영문과로 옮겼다. 그리고 숙명여대를 졸업하기 전, 1953년 1957년까지 파리의 소르본 대학에서 불문학을 공부했다. 1961년 장편 『인간에의 길』이 경향신문 현상모집에 당선되면서 등단하였다. 중앙대학교 문예창작과 교수와 예술대학 학장을 역임하였고 4년 동안 암으로 투병하다 향년 70세를 일기로 1999년 별세하였다.

소설집으로는 『외로운 생존』(1965), 『귀향』(1974), 『낮은수첩』(1976), 『흔들리는 배』(1991), 『바람결에 들려오는 시간들』(1994), 『토비아의 집』(1994), 『산마루 오르는 시간의 수레』(1996), 수필집으로는 『석공처럼 다듬으며』(1994) 등이 있다. 1967년 장편소설 『목소리』로 제2회 월탄문학상을, 1997년 『산마루 오르는 시간의 수레』로 국제펜클럽 한국본부에서 제정한 펜문학상을 받았다.

이와 같은 전기적 사실은 숙명여자대학교 한국어문화연구소, 『한국여성문인사전』(태학사, 2006)과 구혜영, 손장순, 김의정, 『한국문학전집 24』(삼성출판사, 1987); 김의정, 『목소리』(성바오로출판사, 1993); 김의정, 『토비아의 집』(일신서적출판사, 1994)의 연보를 참조하였다.

은 『인간에의 길』을 “신문 소설의 최고봉”이라 소개하며 “내가 신문계에 투족한 이래 약 四十年간 신문이 모집하여 당선된 소설 중에서 『人間에의 길』은 최고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맑은 知性和 높은 教養과 깨끗한 靈魂을 독자들은 이 작품에서 대면하게 될 것이다.”라고 고평하고 있다. 백철 역시도 “『인간에의 길』은 우리나라 신문 소설의 既成型을 깨뜨리고 그 수준을 數段 높였다.”라고 평가한다.⁵⁾ 이명재는 이 시기 작가군, 특히 여성작가들의 경향이 “흔히 연정적인 재미에 기울어져 있는 데에 반해” 김의정은 “한결같이 인간의 도의적이고 종교적인 가르침에 중점을 두는 태도를 지켜”오며 “교수직을 겸하면서 꾸준히 신문연재 등의 인기소설이 아닌 소박하고 진지한 문예소설을 쓰는 데 나름대로의 품위와 장점이 있어 수긍되는 여류작가”라고 소개하고 있다.⁶⁾ 또 그 당시에 활동했던 여성작가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많은 논쟁을 벌이기도 했던 김우중은 “김의정은 주관적 서술에 능한 작가다. 주관적 서술에 능하다는 것은 자기 고백적 서술에 큰 통로를 열고 있다는 말이 되며, 나아가서 잠재의식의 심연에 뿌리내리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평하고 있다.⁷⁾ 이와 같은 당대의 평가는 대개 남성중심적 비평에서 여성작가의 이력에 대한 호감어린 소개 정도이거나 혹은 다른 여성작가들에 비해 진지한 문제의식을 가졌다는 식의 수준이었다. 그리고 사실 지금까지 김의정의 소설이 본격적인 작가론이나 작품론의 차원에서 연구된 경우는 거의 없다.⁸⁾

5) 김의정, 『인간에의 길』, 신구문화사, 1962.

6) 이명재, 『여류, 카톨릭시즘, 귀소의식』, 구혜영, 손정순, 김의정, 위의 책, 412~419쪽 참조.

7) 김우중, 『인간에의 추구-김의정의 작품세계』, 김의정, 『목소리』, 앞의 책, 305~309쪽 참조.

8) 김의정에 대한 글은 앞서 소개한 김우중, 이명재의 글 외에 최정숙, 강인숙, 서정자의 글 정도를 꼽을 수 있다. 최정숙의 글은 작품집 해설로 실려 있는데 여기서 최정숙

대부분이 작품집의 해설을 위한 단평 정도로 대개 초기 작품 몇 편에서 두드러지는 소재나 주제가 주로 ‘카톨릭시즘’적인 세계관을 밝히는 데 일조하고 있다는 맥락에서 다루어진 것이었다. 물론 김의정의 등단작 장편 『인간에의 길』(1961년, 경향신문)이나 중편 『囚人の 수기』(1961년 작, 『새길』)⁹⁾와 같은 초기 작품에서 보여준 첫 인상과 김의정의 작가적 위상을 정립해줬다고 볼 수 있는 장편 『목소리』(1966년, 제 2회 월탄문학상¹⁰⁾ 수상)에서 종교적인 소재가 자주 등장하는 것은 사실이다. 이밖

은 “김의정의 소설들은 다른 작가들에 비해 좀 낯설기도 하면서 한편으로 신선한 느낌을 주는 작품들이 많다. 그 까닭은 기법의 특수성과 주제의 특수성 때문이다.”라고 명명하며 김의정 작품의 특징을 죄와 구원, 귀향(歸鄕)소설, 귀동(歸童)소설로 정의하고 주제면에서 종교적 특색을 띠고 있다고 정리하고 있다. 강인숙은 김의정이 1966년 『현대문학』에 발표하였던 단편 『신동이야기』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며 “『신동이야기』는 씨의 본령인 카톨릭시즘과 직결되는 작품은 아니다. 인간을 ‘재능’에 의하여 평가하는 사회적 기준에 대한 비판일 뿐이다.”라고 단평하고 있다. 김의정의 작품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로는 서정자의 글 정도를 유일하게 꼽을 수 있었는데 서정자는 90년대에 발표한 『바람결에 들려오는 시간들』(1994), 『산마루 오르는 시간의 수레』(1996)를 대상으로 “가족사소설은 지금까지 부자관계를 중심으로 한 가부장적 가족 구조를 다룬 소설이 대부분이었으며 여계 중심의 가족사 소설이라 하더라도 페미니스트 의식을 지님으로써 가출을 감행하는 1세대로 하여 모계가족이 형성되는 예는 아직 없었다”며 김의정 소설을 “모계가족사소설”로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1960년대 발표된 김의정의 소설에 대한 본격 연구는 필자의 이 글이 첫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위에 소개한 글의 서지사항은 아래와 같다.

최정숙, 『金義貞의 작품세계』, 김의정, 『토비아의 집』, 앞의 책.; 강인숙, 『사고와 풍경의 버라이어티-손장순, 최미나, 김의정, 박순녀』, 『한국현대작가론』, 동화출판공사, 1971.; 서정자, 『김의정의 모계가족사 소설 연구-『바람결에 들려오는 시간들』, 『산마루 오르는 시간의 수레』 연작소설을 중심으로』, 『한국 여성소설과 비평』, 푸른사상사, 2001. (이 글은 전혜자 외 지음, 『한국 현대소설 연구』, 국학자료원, 1998에도 수록되어 있음); 서정자, 『존재 탐구의 글쓰기, 그리움의 시학-김의정의 노년에 쓴 성장소설 고』, 위의 책.

9) 이 작품은 『인간에의 길』이 경향신문에 연재되고 있을 때 『새길』지의 청탁을 받고 쓴 중편이라고 한다. 『새길』은 법무부 기관지로서 수감인들을 대상으로 한 잡지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교화라는 목적의식으로 쓰여진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와 같은 내용은 김우중, 앞의 글, 308쪽 참조.

에도 『수녀와 소녀와』(1962년 작, 단편, 『세계』), 『할렐루야』(1964년 작, 단편, 『세대』), 『고향』(1968년 작, 단편, 『현대문학』)과 같은 작품에도 천주교 성직자(신부, 수녀)가 등장한다. 그러나 이들 작품에 등장하는 ‘성직자’는 ‘종교인’의 고뇌보다는 한 개별적 인간으로서, 현실적으로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번민을 다양하고 심도있게 드러내면서 인간이 가진 한계를 은유하기 위한 장치로 볼 수 있겠다.¹¹⁾ 또한 김의정이 카톨릭 신자였으며 그녀의 소설집이 카톨릭 관련 서적을 주로 출간하는 출판사에서 다수 출판되었다는 사실은 이와 같은 선입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일면이 있다.¹²⁾

그러나 도리어 이러한 인상이 김의정의 작품세계에 대한 관심을 멀어지게 하였던 원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실상 그간 여성작가 연구목

10) 월탄 박종화(朴鍾和)가 1966년 제1회 5·16민족상을 수상한 후, 그 상금으로 창설한 문학상. 1966년부터 시작하여 그 해에는 시 『공원 파고다』로 성춘복이 수상하였다. 월탄문학상 운영위원회에서 주관하여 2001년 제36회까지 시상하였다. 소설로 김의정·이범선·박경리·김국태·서정인·김용운·구혜영·구인환·오찬식·정소성·김지연·이동희 등이 수상하였고, 시로 이탄·김운성·황금찬·박희진·김후란·김여정·이성교·정진규·박제천·강계순·홍윤기·왕수영·강우식·유안진 등이 수상하였다. 비평에서는 김우중·윤병로·윤재근·신동한·천이두·신동욱 등이 상을 받았다. 이와 같은 내용은 야후 백과사전 참조(<http://kr.dictionary.search.yahoo.com/search/dictionaryp>)

11) 김의정 작품에 드러난 성직자의 특징에 대해서는 추후 과제로 미루기로 하며 이 글에서는 장편 『목소리』에 집중하고자 한다.

12) 김의정은 총 9개의 소설집과 1개의 수필집을 출간하였는데 이중 3개 정도의 작품집이 카톨릭 관련 출판사인 성바오로사(『귀향』(1974), 『흔들리는 배』(1991), 『바람결에 들려오는 시간들』(1994))에서 초기 출간되었고 수필집 『석공처럼 다듬으며』(1994)이 바오로딸에서 출간되었다. 이 시기 작가들 대부분이 같은 내용의 작품집을 여러 출판사에서 출간한 예가 많은데 이런 경우까지 헤아린다면 그 사례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 주요 텍스트로 삼고자 하는 장편 『목소리』역시 1966년 발표 당시에는 을유문화사에서 출간하였으나 1993년에 성바오로에서 다시 출간하였고 이외에도 등단작 『인간의 길』(신구문화사, 1962)을 1992년에, G. 베르나스의 『기쁨』을 번역하여 1978년, 1994년에 걸쳐 성바오로사에서 출간하였다.

록에서 김의정에 대한 언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그동안의 여성문학의 연구경향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보통 1960년대 여성작가의 소설이 가진 두드러진 특징으로 ‘낭만적 사랑’이라는 소재를 자주 차용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고 또한 이러한 소재가 여성의 자아인식과 주체의 형성을 탐색하는데 유용하다는 점에서 주로 다루어진 바 김의정은 이 시기 여성작가들의 경향 가운데서도 예외적인 면모를 가진 작가가 되는 것이다.¹³⁾ 그런데 김의정의 60년대의 작품군에 대해 앞선 지적들과서와 같이 종교 소설이라는 범주로만 국한시킨다면 1976년 이후 발표한 『구도』시리즈 등에서 보여주는 사회 현실에 대한 작가의 예민한 풍자와 진지한 문제의식은 어떤 맥락에서 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의문이 남는다.¹⁴⁾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이 작품이 창작되었던 1960

13) 물론 여러 가지 사유에서 선택과 배제가 이루어지겠지만 50~60년대 여성작가들 연구한 글에서 주로 거론되는 작가들은 대략 박경리, 강신재, 최정희, 한무숙, 한말숙, 송원희, 손소희, 임옥인, 정연희 정도이다.

박정애는 이렇게 몇몇 여성작가들만을 대표작가로 선택하는데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이는 “남성평자들의 남근주의적 비평 행태를 비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것을 준거로 삼는 여성문학 연구의 한 곤경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며 이 시기 대표작가로 “손장순, 이규희, 구혜영, 김의정”을 제외한 편집 기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여기서 박정애는 『페미니즘과 소설비평: 현대편』과 같이 이 시기 여성작가를 다룬 본격 연구서를 예로 들고 있다.) 이런 박정애의 지적은 일견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지만 그녀의 글에서도 다양한 여성작가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전개되지는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

위의 내용과 관련된 글로는 다음을 참조할 수 있다. 송인화, 『1960년대 여성소설과 ‘낭만적 사랑’의 의미』, 『여성문학연구』 11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4. 6.; 한국문학연구회, 『페미니즘과 소설비평: 현대편』, 한길사, 1997.; 박정애, 앞의 책 참조.

그 밖에 시기 구분이 면밀하지는 않으나 ‘여성소설’이라는 키워드로 이 시기 여성작가들에 대한 연구가 수록된 책 목록은 다음과 같다. 김미현, 『한국여성소설과 페미니즘』, 신구문화사, 1996.; 김정자, 『한국여성소설연구』, 민음사, 1991.; 임금복, 『현대여성소설의 페미니즘 정신사』, 새미, 2000.; 정영자, 『한국여성소설연구』, 세종출판사, 2002.; 정미숙, 『한국여성소설연구입문』, 태학사, 2002.; 김해옥, 『페미니즘 이론과 한국 현대 여성소설』, 박이정, 2005. (이상 출판연도순)

년대라는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보는다면 작가는 도리어 ‘종교’를 표면으로 내세우면서 무언가 다른 의도를 은닉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하는 가정을 세워보고자 한다. 따라서 그간 주밀한 분석이 결여되었던 작가 김의정에 대한 평가를 재고하며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장편 『목소리』에 내재된 의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2. 다문화적 차이의 인식을 통한 탈경계적 주체의 출발

김의정의 『목소리』는 6. 25 전쟁을 배경으로 거대한 외부 세계의 폭력에 대항하여 주체적으로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여성들의 성장 소설이다. 그렇지만 이 소설은 전쟁의 참상을 고발하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그 첨예한 상황을 소설적 ‘배경’으로 활용하여 삶의 갖가지 양태를 탐구하고 있다. 이 작품은 크게 두 개의 축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수임, 예화, 경미 세 친구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각자의 삶을 일궈가는 내용이고 다른 쪽은 수녀가 된 수임이 몸담고 있는 프랑스 성직자들이 운영하는 카톨릭 수도원에 인민군이 침입하면서 프랑스인, 미국인, 한국인 성직자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갈등관계이다.

이 작품의 주요 사건이 전개되는 카톨릭 수도원은 신과의 합일에 귀소하는 종교적 공간이라기보다는 다양한 문화가 접면하고 충돌하는 생활

14) 김의정은 1976년 7월 『한국문학』에 발표한 「구도 A」를 시작으로 「구도 B」(1976년 작, 단편, 『문학사상』), 「구도 C」(1977년 작, 단편, 『한국문학』), 「구도 E」(1977년 작, 단편, 『문학사상』), 「구도 F」(1978년 작, 단편, 『현대문학』), 「구도 G」(1978년 작, 단편, 게재 지면 미확인), 「구도 H」(1979년 작, 단편, 『한국문학』)를 연이어 발표한다. 김의정이 70년대에 발표한 구도시리즈에서는 피폐한 인간관계와 가족 정서의 파괴, 아파트 개발로 인한 투기와 탐욕 등 산업화시대의 비인간화 현상을 주 소재로 다루고 있다. 이 구도시리즈는 김의정, 『토비아의 집』, 위의 책에 수록되어 있다.

의 공간이다. 또 수도원 안에서 프랑스인 수녀들이 이끌고 있는 ‘고아원’은 해방 후 서구 열강에 의해 유린당하는 식민지적 상황의 한국을 표상하는 은유적 함의이기도 하다. 이 작품에서 인상적인 부분은 신부나 수녀를 성직자라는 집단으로 전형화시키지 않고 각각 개별적인 ‘차이’를 가진 인간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종교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지만 각기 모두 다른 입장으로 견주고 있다. 이는 특히 함께 생활하는 한국인 수녀들에 대해 폄하하는 프랑스 수녀들의 인식과 태도라든가 표면적으로는 종교적인 관계를 통해 하나로 결속되어 있는 듯 보이나 그 안에서도 분명한 정치적 입장의 차이가 존속하는 신부들의 관계에서 극명히 볼 수 있다. 이 부분에서 자신의 입장을 고집하는 인간의 속성이 신앙의 영역에서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그려낸 작가의 통찰력이 돋보인다.

“신부님! 이 순간은 프랑스식 관념과 감상만을 고집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더욱이 고령이신 신부님은 누구보다도 먼저 피난을 가셔야 할 몸이십니다.”

“오오, 조 신부님! 그것이 바로 미국식 실증주의 사고방식입니까? 늙은 사람은 피난이나 가야한다…그것 참 좋군요. 우리 성직자들은 체력이나 연령만으로 천주께 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이 체력을 앞지를 때가 있지 않아요?”

해학적인 말투로 미국 신부들을 반박하는 오귀스탱 신부는 나이보다 훨씬 젊어보이는 유쾌하고도 기력이 넘쳐흐르는 그런 모습과 표정을 하고 있었다.”¹⁵⁾

행동에 앞서 회의를 일삼는가 하면 행동을 하면서도 반성에 집착하기 쉬운 유럽인들에게 비하면 미국인들은 행동에 앞서 결단을 내리면 그 결

15) 『목소리』, 114쪽.

단을 뒤쫓아 행동을 계속할 뿐이었다.¹⁶⁾

인민군의 포성 가운데 서퍽 기념 60주년을 맞는 수녀원 책임신부 오귀스탱을 위해 벌어진 축하연에 찾아온 미국인 신부 조와 에드워드는 프랑스 성직자들에게 피난을 권고한다. 그러나 프랑스인들은 자신들의 직분을 지킬 것을 맹서하며 동요하지 않는다. 이후 전쟁의 급박한 상황에서도 이 두 집단은 자민족주의적 알력으로 대립하게 된다. 인민군에게 감금되어 처단의 위협이 있는 상황 하에서도 불필요한 대의명분과 엄숙주의적 감상에 젖어 소신만을 고집하는 프랑스인들과 경박하면서 자기 본위의 이기적 성향을 가진 현실적인 미국인이라는 서로에 대한 폄하와 반목은 전시라는 상황보다 더 첨예한 갈등을 빚어내는 요소이다.

이와 같은 대립은 같은 국적이라도 직분과 입장에 따라 끊임없이 발생한다. 일례로 프랑스인 글라라 수녀는 전쟁의 판국에서도 외교관의 예우를 운운하는 프랑스 공사의 허세를 배격하며, 고아원을 운영하는 것으로 불우한 한국인을 돕는다는 자부심에 차있는 프랑스인 원장수녀의 권위주의와 배타주의를 비판한다. 같이 일하고 싶다는 미국 수녀회의 간청을 “오합지중이 싫다는” 이유로 거절하는 원장수녀의 독단적인 태도에 결국 글라라 수녀는 반발한다.

“결국은 배타적인 것이 아닙니까?”

“배타적이 아니라 나는 그 오합지중이 싫다는 겁니다.”

원장수녀의 말투는 전형적인 프랑스인으로서의 노골화된 긴장의 표현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으로 오합지중이나 순수하거나 한 것은 결코 혈통을 지닌 민족 자체에 있는 것

16) 『목소리』, 132~133쪽.

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들의 마음에 속하는 세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 글라라 자매의 그 이상주의론이 또 나올 판이군요. 사실은 어디까지나 현실의 토대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잊어선 안됩니다.”

원장수녀가 말하는 현실과 사실이란 미국이라는 나라가 오늘에 이르게 된 현실과 역사적인 사실을 말하는 것이었다.

“현실 자체나 현실을 보는 우리 눈이 잘못되었을 땐 가차없이 시정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만…어떻게 제 생각으로 우리 사업에 있어선 그런 모든 문제는 초월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혈통과 민족을 떠난 다 같은 천주의 아들딸이 아닙니까?”¹⁷⁾

프랑스인 수녀 글라라는 갈등적 상황의 파국을 조정하려 노력하는 중재자적 인물이다. 글라라 수녀에게는 혈통과 민족을 떠나 모두 ‘평등’하게 화합하는 것이 가장 ‘인간다운 태도’이다. 원장수녀는 수도원의 한국인 수녀와 프랑스인 수녀들을 구분하여 차별하고 한국인 수녀들에게 프랑스식으로 대접받고자 한다. 한국의 이품을 나누고자 선교 봉사를 왔으나 한국어를 전혀 배울 필요가 없고 침소와 식사마저도 따로 환대받는 수도원의 상황이 “이율배반적”이라 느끼는 글라라 수녀는 수도원의 운영방침에 대해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한다. 그리고 한편으로 글라라 수녀 자신도 서양인의 시선으로 한국을 억압하려하는 외국인 성직자들의 태도를 어느새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반성한다. 그리고 그간 한국인에 대해 ‘안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편협한 자신을 성찰하며 ‘차별’이 아닌 ‘차이’에 주목하기 시작한다.¹⁸⁾

17) 『목소리』, 64쪽.

18) 사이드의 관점에 따르면 “동양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동양은 완전히 부재한다.” 이렇게 동양에 대한 서양의 지식이 독선적이고 허구적일 수밖에 없는 것은 단지 동양의 역사에 대해 ‘안다’는 것만으로 동양의 감정, 기대 문화까지도 ‘이해’하고 있다는 ‘착각’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이드는 그동안 지배문화가 헤게모니를 쥔 수 있었던 이유는 ‘타자의 차별differentiation’-타자를 열등한 것으로 제외시키는 차별-

한결같이 천주를 찬양하는 기쁨의 소리이긴 하지만 김 수녀를 비롯한 한국 수녀들의 음성 속엔 형용할 수 없는 울분과 말없는 반항같은 것이 밑바닥에 깔려 있는 느낌이었다. (...) 한국 수녀들의 노랫소리에 귀를 기울이던 글라라 수녀는 무의식 중에 그녀들과 자기 사이에 어떤 거리감을 느꼈다. 같은 천주의 아들딸들이다. 그러기에 예수는 형제의 사랑을 인간들에게 강조하기도 했던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지상의 모든 인간들이 인종과 민족과 국가 사이에 울타리를 치거나 깊고 넓은 도량을 파놓은 것은 결국 천주 스스로가 섭리를 방임한데서 온 결과가 아닐까...¹⁹⁾

‘차이’를 발견해낸 이방인 수녀에게 포착된 것은 ‘거리’이다. 이 ‘거리’는 민족적 상황의 공동체적 울분에 기인한 것이기에 이방인인 글라라 수녀로서는 그 정경을 안타깝게 관조할 뿐 공감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이 작품에서 작가가 강조하려는 것은 민족주의적 단결이라든가 사상적 대립의 폐해가 아니다. 그런 ‘차이’에 대해 인식하고 이를 실천의 차원으로 옮겨보고자 하는 움직임, 그 자체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를 강조하기 위해 이 작품에서는 ‘수도원’을 지배하는 권력이 ‘공산주의’로 전도된 후에도 인민군을 천편일률적인 이데올로기의 전형으로 그리지 않고자 노력한다.

어지간히 깊이 파졌다. 그도 이만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던지 영금영금 기어나왔다. 수녀들은 묵묵히 서 있을 뿐 답례의 말을 하지 않았다. 그에게 말을 걸 용기가 없었다. 알 수 없는 벽이 가로막고 있는 느낌이었다. 색깔이 다른 제복의 탓일까... 그것보다도 그들에겐 서로 다른 경계심이 앞섰기 때문이다.

그 군인은 수녀들에겐 별로 관심을 두지 않은 듯 자기가 파놓은 그 구멍

있음을 지적하며 ‘차이difference’에 주목할 것을 요청한다. 에드워드 사이드, 『오리엔탈리즘』, 박홍규 역, 교보문고, 2007.

19) 『목소리』, 105쪽.

을 물끄러미 내려다보며 호주머니 속에서 꺼낸 무명 손수건으로 얼굴에 흘러내리는 땀을 씻었다. 글라라 수녀는 그가 들고 있는 꼬깃꼬깃한 무명 수건을 바라보았다. 그가 땀을 다 닦고 났을 때 글라라 수녀는 그가 벗어 놓았던 윗도리를 얼른 집어 그에게 내주었다. 그의 호의에 보답하는 길은 그것밖에 없었다. 악에 치받친 눈길이 아니었다. 글라라 수녀를 쳐다보는 눈길 속에서 순하다순한 그의 참모습이 엿보이는 듯 했다.

“고맙습니다!”

글라라 수녀에게서 옷을 받아 준 그는 한걸음 물러서며 깍듯이 인사를 했다.²⁰⁾

외국인 신부들이 모두 연행된 후 공산당 감시 체제의 수도원에 홀로 남은 고령의 오귀스탱 신부는 한국에서의 60년 봉사 끝에 처연히 임종하게 된다. 그 외중에 초라한 장례를 치루는 수녀들을 묵묵히 돕는 한 인민군의 모습은 자못 인상적이다. 인민군이라는 ‘색깔이 다른 제복’의 기표는 그 안에 담겨있는 진의를 읽어내는 데 방해가 되는 제도의 표식일 뿐이다. 도리어 그 제복 속에 감춰 두었던 “꼬깃꼬깃한 무명손수건”을 발견한 글라라의 시선을 통해 작가는 소통의 가능성을 연다. 삶의 진정성이란 기표 속에 매몰되어 초라하고 왜소해 보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이렇게 작고 사소한 소박함에서 비롯되는 것일런지도 모른다. 작가는 우리의 삶을 한 차원 높은 곳으로 끌고 가는 것은 종교도, 이념도 아닌 인간에 대한 예의와 도리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정치적 이념을 뛰어넘을 수 있는 화합의 끈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수도원’은 사안에 따라 다른 입장을 가진 다양한 인간들이 존재하는, 아군과 적군의 경계가 무너진 ‘차이’의 공간으로써 다문화²¹⁾적 혼성을 표현하는 데

20) 『목소리』, 246쪽.

21) 일반적으로 다문화란 성별, 종교, 직업, 계층, 인종 등에서 비롯되는 각 사회집단들의 고유한 문화적 특성이 다양하고 존재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주류 또는 비주류 집단들

효율적 장치가 되고 있는 것이다.

모두가 다 눈물을 흘리며 핏기를 잃고 누워 있는 유신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유난히 작고 빈약한 체구를 지닌 유신부이다. 이렇게 작고 빈약한 체구에서 그렇듯 거센 용기와 의지와 우의와 사랑의 불길이 뿜어오르리라곤 상상하기 힘이 들었다. 항상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입장에 설 줄만 알았던 서양인 성직자들도 지금 이 보잘 것 없는 체구의 유신부 앞에 무릎꿇고 감사드리고 싶었다. 인간이란 상황에 따라 우월감을 가질 수도 있고 그와 반대로 열등감을 느낄 수도 있다. 어느 편이거나 결코 결정된 특권일순 없는 것이다.²²⁾

‘차이’를 인정하는 것은 식민지인으로서의 수치심을 버리고 당당한 주체로 일어서는 동력이 된다.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도 동료 성직자들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은 유신부의 모습에서 외국인 성직자들은 자신들의 태도를 재인식한다. 또한 이 ‘차이’에 대한 인식과 인정은 식민지인으로서의 모멸감에 차 있던 수임과 한국인 수녀들에게도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주변화된 사람들의 정체성 찾기 작업은 그간 몇 겹의 분열을 경험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오히려 자아의 통합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함을 깨달아 가면서 수임과 수녀들은 변화하기 시작한다. 공산당에 의해 외국인 성직자들이 모두 연행되고 나서도 끝까지 고아원 운영을 책임지겠다고 남은 수임과 김수녀는 자신들의 내면의 ‘목소리’를 실천하는

의 문화를 동등하게 여기고 존중해야 하는 데서 시작된다. 다문화주의는 불평등과 억압의 문제에 제동을 건다는 측면에서 페미니즘과 아주 가까운 관계를 맺는다. 결국 차이를 수용하고 이에 대한 존중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서 출발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정하성, 유진이, 이장현 공저, 『다문화 청소년 이해론』,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 편, 양서원, 2007, 15~45쪽 참조.

22) 『목소리』, 269~270쪽.

독립적인 주체로 거듭난다. 외국인에게 구제의 대상이거만 했던 한국인들의 정체성은 아무런 도움이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자율적인 힘을 발휘한다. 이는 수녀들과 격리 수용되었던 고아원 아이들이 서로를 보살폈던 자율적인 경험을 김수녀와 수임에게 자랑하는 가운데서 잘 드러난다. 기회가 없었기에 감춰져 있던 저력은 이렇게 위기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긍심을 갖게 되고 이는 한국인을 열등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외국인들의 시선에도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다.

이 작품에서 ‘수도원’은 종교적 성소라기보다는 다문화적 ‘차이’가 접변하는 생활공간, 그 ‘차이’로 인한 혼돈이 극대화되는 전시 한국의 표상으로 등장한다. 또한 이 공간에서 빚어지는 이념과 계급, 자민족주의적 대립은 각기 다른 문화를 추구하는 집단의 입장적 차이일 뿐이기에 그 집단 안의 각 개별자들은 제도적 입장을 떠나 ‘인간에’로 화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함을 시사하고 있다. 그리고 이 다문화적 ‘차이’의 인식이 야말로 탈경계적 주체의 확립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내면의 ‘목소리’로 주조한 반성적 연대의식과 ‘우리’의 탄생

흔히 1960년대 전쟁문학, 특히 장편소설에서 그려지는 전쟁이란 국시였던 반공주의를 주제로 삼아 역사적 경험의 사실을 소설로 형상화하는데 치우친 경향이 있다.²³⁾ 보통 전쟁을 소재로 삼은 남성 작가의 소설이 통상 사건사, 정치사 중심의 거대사적 접근 및 인식을 드러낸다면 여성

23) 이와 같은 특징에 대해서는 박영준, 「집단의 동일체험에 대한 개인적 기록 서사의 유형-1960년대 전쟁 장편소설의 세 가지 구조」, 『소설과 우연의 질서』, 월인, 2006 참조.

소설은 대개 개인-가족-일상 중심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²⁴⁾는 분류를 상기할 때 김의정이 『목소리』에서 보여주는 문제의식이란 그 어느 쪽에도 포괄되지 않는 예외적인 것이 된다. 『목소리』는 전쟁을 소재로 하는 여성작가의 소설에 흔히 등장하는 가족의 위기와 해체를 그린 서사도 아니며 여성이 비역사적인 방식으로 전쟁을 인식하는 주체로 등장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²⁵⁾ 이 작품은 ‘전쟁’이라는 위기 상황을 정면직시하면서 주체적인 ‘목소리’를 발견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여성인물들이 아버지 세대의 모순을 인식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삶의 방식을 고민하면서 출발한다는 데 그 새로움이 있다 하겠다.

대개 우리 문학사에서 ‘아버지’란 가치 기준으로서 개인의 주체 확립에 중요한 위치를 갖는 은유로 등장하거나 자본주의적 능력을 지닌 가장으로 형상화된곤 한다. 그래서 ‘아버지 부재’ 자체가 서사의 추동 원인으로 작용하면서 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가치관의 붕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치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부재’는 성장소설에 가장 흔히 등장하는 모티프가 되기도 한다.²⁶⁾ 그렇지만 『목소리』의 아버지 부재는 여성 성장소설에서 남근을 결핍한 여성인물에게 이중적 성장장애 요소로 작용한다는 종래의 관점²⁷⁾과도 변별된다. 이 작품 『목소리』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애초부터 부재하거나 급박한 현실에 무기력하다. 이에 반해 현실에 대해 냉정한 성찰과 고민을 피하는 딸들은 아버지 세대의 타성을 거부하고 그 인식적 한계를 주체적으로 넘어서고자 한다.

24) 이에 대한 내용은 김복순, 『1950년대 여성소설의 전쟁인식과 ‘기억의 정치학’』, 『한국여성문학연구』 10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3. 12 참조.

25) 이와 같은 특징을 보이는 대표적인 작가로 전자의 경우로 박경리, 박완서를 후자의 경우로는 강신재를 꼽을 수 있다.

26) 이에 대해서는 서연주, 『김승옥과 욕망의 서사학』, 청동거울, 2007, 40~49쪽 참조.

27) 이와 같은 관점으로 여성 성장소설을 분석한 글로 나병철, 『여성 성장소설과 아버지의 부재』(『한국여성문학연구』 10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3. 12)이 있다.

이 작품의 중심 서사를 이끌어가는 수임, 예화, 경미 이렇게 세 여성인물은 각기 나름의 입장에서 삶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사회적인 상황에서의 회의와 불안을 느끼며 결혼을 통해 얻는 개인적 행복보다는 수녀가 되어 인간의 길을 가겠다고 다짐하는 보수적인 지주계층 출신의 수임, 사람들의 마음을 위무하는 예술가의 길을 걷고자 무대를 얻기 위해 인민당원이 되는 정치 열병으로 몰락한 집안의 딸 예화, 그리고 생존의 위기감 때문에 수녀가 되고자 했으나 시대적 상황에 따라 인민당원이 되어 권세를 얻고자 배신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가난한 편모가정 출신의 경미. 이렇게 세 여성인물은 태생적으로 각기 다른 경제적, 계층적 입장에 처해있기 때문에 각기 다른 방식으로 삶을 직조하게 된다.

이렇듯 서로 다른 처지에 있는 세 인물들이 내면의 ‘목소리’를 자신이 희원하는 삶의 지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이데올로기를 탈주하고자 하는 여성 주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 작품은 표면적인 구도상 어떤 ‘목소리’의 이끌림에 따라 수녀가 되는 수임의 모습이나 인민당원이 되었다가 자신의 과오를 고백하며 죽어가는 경미의 죽음 때문에 종교적인 색채를 띤 작품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일면이 있다. 그러나 유심히 살펴야 할 부분은 작품의 종결부분에서 수녀가 된 수임이 복송되기 위해 끌려가는 글라라 수녀를 먼발치에서 바라보며 대면하게 되는 ‘목소리’이다.

지금 수임 앞에 보이는 것은 마음의 태양, 글라라 수녀뿐이었다. 모두가 없어져버린 어두운 거리에 그래도 그 태양만이라도 있어준 것이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알 수 없었다. 수임의 발걸음은 고아원을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지금 수임의 귀에 들리는 것은 질주하는 많은 차량이나 들끓는 인파의 아우성이 아니었다. 맑은 방울소리와 같은 마음의 태양의 목소리였다.(…)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데 이 마음의 태양은 어찌하여 남에서 북으로 궤도를 밝게 된 것일까? 그것이 자기가 바라는 천주의 섭리라면 수임은 그 길이 제 아무리 험악한 길이라해도 그 태양을 따라 북으로

북으로 걸어가야 한다고 몇 번이고 자신에게 다짐하였다.²⁸⁾

이 작품이 발표되었던 1966년은 이미 반공법이 철저하였을 때이다. 따라서 이에 위배되는 모든 출판물과 영상물은 강력한 법적 제재를 받았다.²⁹⁾ 당시 냉전적 반공, 친미, 자유민주주의는 ‘시민종교’라고 일컬어졌을 만큼 국민의 도덕적 통합의 구심이었다.³⁰⁾ 이런 시국하에 전쟁 전부터 야당성향이 강했던『경향신문』³¹⁾으로 등단한 김의정이 말하고 싶었던

28) 『목소리』, 294~295쪽.

29) 그 한 예로 1965년에는 『7인의 여포로』가 반공법에 걸려 감독 이만희가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영화는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에게 잡힌 여자 포로들을 중공군이 강간하려 하자 인민군 수색대가 중공군을 쏘아 죽여 북쪽에서 쫓기는 신세가 되는 바람에 국군으로 귀순한다는 내용이었다. 일종의 반공영화였음에 틀림없으나 북한군을 너무 멋있게 그린 게 문제가 되었던 것이다. 즉 감상적인 민족주의를 내세워 국군을 무기력한 군대로 그린 반면, 북괴의 인민군을 찬양하고 미군에게 학대받는 양공주들의 비참상 과장묘사, 미군 철수 등 외세 배격풍조를 고취하였다는 죄목으로 단죄되었다. 이와 같은 내용은 강준만, 『한국현대사 산책 1960년대 3권』, 인물과 사상사, 2006, 64쪽 참조.

30) 이에 대한 논의는 강인철, 『한국전쟁과 사회의식 및 문화의 변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한국전쟁과 사회구조의 변화』, 백산서당, 1999 참조.

31) 자유당 정권하에서는 당시 가장 영향력있던 야당지의 하나인 『경향신문』에 대해 1959년 4월에는 미군정 법령 88호를 적용, 폐간 처분이 내려지기도 했다. 그러다 1960년 7월 1일에는 개정헌법에 의거하여 정기간행물에 대한 기존의 허가제를 폐지하고 ‘신문 및 정당 등의 등록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자유당 정권하에서 봉쇄되어 있던 신문, 통신, 잡지 등 정기간행물 발행이 자유화되면서 『경향신문』역시 활로를 찾는 듯 했다. 그러다 1963년 5월 23일 천주교 재단에서 떨어져 나와 이준구가 실질적 사주 겸 사장으로 등장하였는데, 이준구는 1965년 4월 반공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기도 하였다. 그 외에도 당시 정부 비판으로 적지않은 흑자경영을 하고 있던 『경향신문』은 박정희의 압력으로 경매처분되었다. 이는 언론윤리위원회법 과동 시 『경향신문』이 강력하게 저항한 것에 대한 박 정권의 보복 조치였다. 이후 『경향신문』은 친정부 논조로 급변했고 이에 자신을 얻은 박 정권은 점차 본격적인 언론 탄압의 손을 뻗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내용은 강상현, 『1960년대 한국언론의 특성과 그 변화』, 정신문화연구원 편, 『1960년대 사회변화연구: 1963~1970』, 백산서당, 1999. ; 강준만, 앞의 책, 110~115쪽 참조.

‘목소리’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한국사회는 한국전쟁을 통하여 해방공간에서 사회성원 중 상당수에게 강고하게 자리잡았던 계급기 정체성을 ‘강압적으로’ 해체시키는 과정을 겪었다. 이는 『목소리』에서 현실을 냉정히 파악하지 못한 채 좌초하는 아버지 세대를 딛고 자기 나름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딸들의 등장으로 나타난다. 그 대표적 인물이 바로 인민당원이 된 예화라고 볼 수 있다. 반공법이 큰 밑그림이 되었던 시대에 예술인으로 승화된 예화가 검열에 걸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인민당원이 되어 죽음을 맞이하는 경미라는 인물의 대비가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김의정은 수임이의 ‘목소리’를 변주시켜 시대적, 정치적 판단을 뛰어넘는 어떤 소신을 가진 주체적인 인물의 탄생을 그려내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한다.

이렇게 작가는 자기 앞의 삶을 소신있게 살아가는 세 친구를 보여줌으로써 독자에게 참다운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을 던지고 있다. 이 세 여성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은 자기 안의 내밀한 ‘목소리’에 주목하여 자신의 기원을 찾아 가는 것이다. 작가는 수임, 예화, 경미의 각각의 삶의 양태에 대해 어떤 판단도, 비판도 가하지 않고 그저 상대적인 가치의 ‘차이’가 있을 뿐임을 강조한다. 이 작품에 활용되고 있는 종교는 시대적 상황을 더 과편화된 것으로 인식시키는 하나의 장치가 되고 있을 뿐 이 작품에서 중국에 다루고자 하는 것은 종교적 구원의 문제는 아니다.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는 실존적 ‘목소리’를 찾아나서는 주체와 그리고 그 모든 분열을 자기 안의 것으로 포용하는 융합의 의식 속에서 성장하는 자아의 서사가 이 작품에서 지향하는 목표이다.

그녀들이 결국 선택한 것은 내면의 ‘목소리’이다. 이 ‘목소리’는 무엇을 억압하거나 강요하지 않는다. ‘차이’를 넘어서는 배려와 화합으로 경계를 무정치화하고 하나로 일궈낸다. 이는 서로의 ‘차이’를 귀히 여기며 그 안에서 새로운 힘을 찾아내는 통합의 서사를 지향하고 있기에 가능한 것이

다. 이 작품에서는 그 실현이 민족과 사상과 종교적 차이도 허무는 “인간애”가 중심에 서야한다는 것으로 귀결된다.

글라라 수녀와 군관동무와 수임이, 그들의 시선이 교차되는 점은 모든 장애와 이념과 국적까지도 초월한 따사롭고 부드러운 인간애로 이루어져 있었다.³²⁾

복송되는 글라라 수녀를 마지막으로 보기 위해 김밥장사로 가장하고 나온 수임과 이를 눈치 채고도 눈감아주는 인민군 군관동무, 그리고 수임의 애끓는 시선을 침묵으로 대면할 수 밖에 없는 글라라의 마음이 교차하는 곳에는 “색깔이 다른 목소리”를 통합시킬 수 있는 “마음의 태양의 목소리”가 존재한다. 이 ‘목소리’는 모든 것을 포괄할 수 있는 “인간애”에 기초한 것이다.

여기서 이 “인간애”는 레비나스의 ‘타자윤리학’ 개념과 일치한다. 레비나스는 타자로 향한 존재의 정향성으로 말미암아 인간간의 유대가 성립될 수 있다고 본다. 인간의 유대, 모든 인간이 형제라는 것은 종과 유로서 구분되는 인류의 속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도와주고 베푸는 박애와 대화 속에서 형성된다. 이 같은 의미에서 타자에 대한 동일자의 무한한 관심이 인간의 유대, 사회의 기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너와 나의 배타적 친밀성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타자에 대한 윤리적 응답, 도덕적 책임은 모든 인류에게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³³⁾

김의정은 이 “인간애”에 기초하여 다양한 문화를 포괄하고 나아가 ‘우리’의 연대가 가능함을 이야기한다. 이는 김의정의 등단작 『인간애의 길』에서부터 제기되어 왔던 부분이다. 프랑스 유학경험을 가진 작가 특유의

32) 『목소리』, 293쪽.

33) 김연숙, 『레비나스 타자 윤리학』, 인간사랑, 2001, 174쪽.

사적 체험이 묻어 있는 이 작품은 알프스 산장에서 우연히 만난 여러 국적의 사람들이 우정을 나누는 가운데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방식이 각자의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한다는 점이다.

“한국에서 온 루미가 손수 만든 한국요리를 오늘은 먹어보잔 말이야! 어때, 미셸. 자넨 그런 재미나는 식사를 지금까지 해본 적이 있나?”

“물론 없지. 처음이니까 더욱 즐거운 거야. 야! 그건 놀랄만한 생각인 걸!”

이러한 그들 앞에서 꼬리를 빼기 위하여 사양을 할 순 없었다. 그들의 환성엔 약간의 흥분까지 뒤엉켜 있었다. 나는 재료의 빈곤을 탓하며 있는 고기로 불고기를 마련했다. 그들은 손쉽게 만들어진 것과 산에 가장 어울리는 음식이라고 칭찬하며 나를 치켜다. 둘러앉은 우리들의 분위기는 꼭 명절같은 기분이다. 그리고 보면 불고기가 이런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것도 아니다.³⁴⁾

물론 매슈 아놀드가 말한 바와 같이 “문화는 여러 가지 정치적, 이념적 명분들이 서로 뒤섞이는 일종의 극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매슈 아놀드는 언쟁과 토론이 가져올 ‘혼란과 분열’을 염려하였고 사이드는 지배문화의 ‘유연함과 관대함’, 즉 ‘열린 태도’가 전제된다면 오히려 ‘통합과 공존’을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³⁵⁾ 그렇지만 사이드의 방식 역시도 지배/피지배의 이분법적 구도를 벗어나지 못하는 분열적인 것일 수 밖에 없는 위험성을 담보하고 있다.

이와 다르게 김의정이 강조하는 것은 타자를 받아들이는 과정을 통해

34) 김의정, 『인간애의 길』, 삼성출판사, 1973, 39쪽.

35) 에드워드 사이드, 『문화와 제국주의』, 김성곤·정정호 역, 도서출판 창, 2002, 19쪽 참조.

자신의 주체성을 세워가는 자아의 탄생과정이다. 『인간에의 길』의 주인공 루미는 프랑스에 체류 중인 한국인 유학생이다. 루미는 이방인의 시선으로 프랑스를 관찰하는 중에 자신이 가진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해 자부심을 키워가는 인물이다. 이방인으로서의 외로움을 느끼던 루미는 프랑스인과 공감의 미덕을 나누는 ‘우리’가 되기까지 서로의 문화적 ‘차이’에 대해 끊임없는 토론을 나눈다. 그 과정에서 ‘차이’를 발견하고 ‘틀림’이 아닌 ‘다름’의 풍요로움을 인식하는 계기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이런 과정에 대한 강조는 『목소리』에도 자주 등장한다. “자기네 식”으로 구분되어 있었던 프랑스 수녀와 한국인 수녀들은 인민군의 감금을 계기로 한 방에서 같은 음식으로 식사하고 한복을 나누어 입으며 “둘러앉아” 생활을 함께함으로써 ‘다름’을 즐기는 ‘우리’로 화합해간다. 언제 위험이 들이닥칠지 모르는 전시라는 억압적 상황에서도 서로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유대감이 큰 버팀목이 되기 때문이다.

하나가 모여 둘이 되고 둘이 겹쳐서 넷이 되고, 그 넷의 힘이 다시 합쳐서 개인의 힘이 되고 보니 이제 두려움이나 불안이 느껴질 리가 없었다.³⁶⁾

분명 이들이 화합해가는 과정에는 소란스러운 언쟁과 대립, 반목과 질시가 있었다. 그렇지만 이 과정에서 도리어 ‘타자’가 아닌 ‘우리’가 탄생한다. 이제 타자는 숨기거나 억압해야 하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들추어지고 말을 거는 대상이 된다.³⁷⁾ 이는 단이 제시한 ‘반성적 연대’의 과정과도 흡사하다.

딘은 보통의 연대방식은 대부분 정서적, 관습적 동일성에 기반한다고 이야기한다. 보통 정서적 연대가 사랑이나 우정같은 개인적 관계에서 성

36) 『목소리』, 130쪽.

37) 이현재, 『여성의 정체성-어떤 여성이 될 것인가』, 책세상, 2007, 141~142쪽.

립되는 구체적 개인 간의 감정적 친밀감에 기반하는데 비해 관습적 연대는 이익이나 가치 규범을 공유하는 공동체 관계에 기반한다. 그러나 딘은 정서적이거나 관습적인 연대가 단지 ‘제한적 연대’일 뿐이라고 비판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종류의 연대는 해당 관계나 집단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을 배제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딘이 제시하는 개념이 바로 ‘반성적 연대’이다.

딘은 자유와 다양성을 위해 연대할 수는 없는지 혹은 차이의 존중에 기반한 연대성의 개념을 가질 수는 없는지를 숙고한다. 그리고 그 가능성은 연대성의 기반을 정서적 관계나 가치 공동체가 아닌 의사소통적 공동체에서 찾자 한다. 반성적 연대의 구성원은 서로를 의사소통의 참여자로 인정하고 생각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 서로 묻고 반응하고 논쟁하는 등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서로를 묶어주는 것은 ‘문화적 동일성’이 아니라 ‘차이’이다. 서로의 차이에 대해 질문하고 드러내는 과정에서 의사소통적으로 연대할 수 있으며 이 의사소통적 관계에서 타자나 문화적 이방인은 우리에게 의해 추방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성하는 결정적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의사소통이란 서로 다른 역사나 문화적 가치 규범을 갖는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다양한 문화적 규범을 내용적으로 통일하기 위해 진행되는 의사소통과 달리, 반성적 연대는 문화적 규범이나 가치 체계간의 차이와 변화를 명시화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³⁸⁾

이는 「목소리」에서 각기 다른 국적, 계급, 이념, 종교를 가진 이들이 “마음의 태양의 목소리”로 화합하는 과정으로 형상화된다. 김의정은 자신의 ‘목소리’대로 인간의 길을 가고자 하는 각 등장인물들을 그 어느 관점으로도 틀렸다고 비난하지 않고 그 ‘다름’의 풍요로움에 주목한다. 따

38) 이현재, 위의 책, 150~152쪽.

라서 이 작품은 전쟁을 소재로 한 소설에서 흔히 보이는 이데올로기적인 대립이나 극한 상황의 대치보다는 ‘차이’를 인식하면서 그 안에서 각자의 신념을 지키며 ‘우리’로서의 융합의 길을 찾아가는 인간들의 다양한 삶의 양태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 소설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에게는 비극적 결말이 없다. 모두 자신의 ‘목소리’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보람을 느끼고 그 안에서 성장하는 주체로 탄생하기 때문이다.

4. 「목소리」의 의의

우리 문학사에서 1960년대는 보통 ‘개인에 대한 인식’과 같은 문제가 언급되기 시작한 시기이다. 또한 1950년대 전쟁의 자장으로부터 걸어 나와 이제 새로운 시대적 인식 속에서 세계에 대한 성찰을 시도하고 군사정권의 등장으로 본격화된 자본주의적 근대화의 양상에 대해 각자의 입장을 정립해가는 때이기도 하다. 이런 의미에서 1960년대는 한국 전쟁에 대한 거리를 확보하고 나름의 삶을 규정하는 구체적인 조건들을 차근차근 따지기 시작한 시기이다.³⁹⁾ 대개 이런 맥락에서 60년대 문학의 보편적 성격을 일컬을 때 운위되는 작가군은 이른바 4.19세대로 분류되는 남성작가들이다. 이들은 1930년대 말에서 1940년대 초에 태어나 전쟁 시기에 유년을 보내고 대학시절에 4.19라는 역사적 사건을 맞이한 문학인들

39) 하정일은 60년대 문학을 가능케 한 내적 요인으로 ‘합리주의의 회복’을 지적하고 있다. 50년대 전후 문학에서는 작가들이 직접적인 전쟁 체험에 매몰되어 절망과 허무의 늪을 허우적거리며 삶의 존재론적 비극에 절규하는 ‘비명의 문학’을 하던 시기였다면 60년대에 와서야 어떤 요인들이 삶의 비극을 초래했는가를 성찰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합리적 시각으로부터 삶의 연관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하정일, 「주체성의 복원과 성찰의 서사」, 민족문학사연구소 현대문학분과, 『1960년대 문학연구』, 깊은샘, 1998, 17~24쪽.

로 ‘사일구 세대’ 혹은 ‘한글 첫 세대’라 일컬어지는 남성작가들이었다.⁴⁰⁾

그렇지만 주지한 바 1960년대는 여성작가가 대거 등장하는 시기이다. 따라서 그간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이 시기 여성작가들의 다양한 작품 세계에 대한 주목이 필요하다. 본고에서 살펴본 김의정의 『목소리』는 한국전쟁의 상황을 여러 문화가 혼종되는 시간으로 제시하고 있다. 작품의 주 공간이 되고 있는 수도원은 종교적 성소라기보다는 서로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는 효율적 장치이자 전시의 한국적 상황에 대한 표상으로 등장하고, 이 가운데 각기 다른 입장에 처해있는 개별자들은 타자를 인식하며 변모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작가는 여러 다른 사상, 이념, 국적 등이 경계를 허물고 화합할 수 있는 장의 가능성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다문화적 ‘차이’를 인식하고 ‘인간애’를 실천하는 데서 탈경계적 주체가 탄생할 수 있으며 이는 나아가 건강한 ‘우리’가 공존할 수 있는 시원의 가능성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시선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그간 남성작가들이 이분법적 대립구도로 형상화해왔던 전쟁의 피폐함이 라든지 또 다른 여성작가들에게 일상사 중심으로 그려졌던 전쟁의 개별화는 사뭇 다른 지점에 있는 김의정의 독특함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작품은 이런 다문화적 ‘차이’가 접변되는 매개로 카톨릭 수도원을 배치하여 그 안에서 빛어지는 다양한 국적과 신분의 성직자들간의 갈등, 이념과 계급의 대치를 다각도에서 상징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종교적 소재가 함몰될 수 있는 폭을 넘어서기 위한 탐구를 시도하고 있다. 이는 종래 김의정을 종교적 구원의 문제에 천착한 작가로 보아왔던 선입견을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또한 이를 통해 작가가 역사를

40) 이 정의는 김현이 60년대 문학을 정리하는 자리에서 언급한 것으로 지금까지도 1960년대 문학을 정리하는 데 있어 통념적으로 이야기되는 분류이기도 하다. 김현, 『60년대 문학의 배경과 성과』, 『분석과 해석/보이는 심연과 안 보이는 역사 전망』, 김현 문학전집 7, 문학과 지성사, 1992, 246~247쪽.

바라보는 시각이나 종교에 대한 접근의 한계를 벗어난 통찰력이 엿보인다고 할 수 있겠다.

이 글은 김의정의 본격적인 작품론으로서는 거의 첫 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시도를 계기로 30여 년간 꾸준히 독자적인 작품세계를 쌓아온 작가 김의정과 우리 문학사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자 했던 여성작가들에 대한 주목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이다.

□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구혜영, 손장순, 김의정, 『한국문학전집 24』, 삼성출판사, 1987.
 김의정, 『인간에의 길』, 신구문화사, 1962.
 _____, 『외로운 생존』, 중앙대출판국, 1965.
 _____, 『흔들리는 배』, 성바오로출판사, 1991.
 _____, 『목소리』, 성바오로출판사, 1993.
 _____, 『바람결에 들려오는 시간들』, 1994.
 _____, 『토비아의 집』, 일신서적출판사, 1994.
 _____, 『산마루 오르는 시간의 수레』, 열린, 1996.

2. 단행본

- 강상현, 「1960년대 한국언론의 특성과 그 변화」, 정신문화연구원 편, 『1960년대 사회변화연구: 1963~1970』, 백산서당, 1999. 147~190쪽.
 강인숙, 『한국현대작가론』, 동화출판공사, 1971.
 강인철, 「한국전쟁과 사회의식 및 문화의 변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한국전쟁과 사회구조의 변화』, 백산서당, 1999. 197~219쪽.
 강준만, 『한국현대사 산책 1960년대 3권』, 인물과 사상사, 2006. 64쪽.
 김미현, 『한국여성소설과 페미니즘』, 신구문화사, 1996.
 김연숙, 『레비나스 타자 윤리학』, 인간사랑, 2001. 174쪽.
 김우중, 「여류작가에게 주는 고언」, 『여원』, 1970. 1월호.
 김정자, 『한국여성소설연구』, 민음사, 1991.
 김혜옥, 『페미니즘 이론과 한국 현대 여성소설』, 박이정, 2005.
 김현, 「60년대 문학의 배경과 성과」, 『분석과 해석/ 보이는 심연과 안 보이는 역사 전망』, 김현 문학전집 7, 문학과 지성사, 1992. 246~247쪽.
 박경태, 『소수자와 한국사회』, 후마니타스, 2008.
 박영준, 『소설과 우연의 질서』, 월인, 2006.
 박정애, 『‘여류’의 기원과 정체성: 50·60년대 여성문학 연구』, 한국학술정보, 2006. 201~205쪽.

- 서연주, 『김승옥과 욕망의 서사학』, 청동거울, 2007. 40~49쪽.
- 숙명여자대학교 한국어문화연구소, 『한국여성문인사전』, 태학사, 2006. 181~182쪽.
- 서정자, 『한국 여성소설과 비평』, 푸른사상사, 2001.
- 오경석 외,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한울아카데미, 2007.
- 은숙 리 자엘펠더 저, 『한국사회와 다문화가족』,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 편, 양서원, 2007, 20쪽.
- 이현재, 『여성의 정체성-어떤 여성이 될 것인가』, 책세상, 2007. 141~152쪽.
- 임금복, 『현대여성소설의 페미니즘 정신사』, 새미, 2000.
- 전혜자 외 지음, 『한국 현대소설 연구』, 국학자료원, 1998.
- 정미숙, 『한국여성소설연구입문』, 태학사, 2002.
- 정영자, 『한국여성소설연구』, 세종출판사, 2002.
- 정하성, 유진이, 이장현 공저, 『다문화 청소년 이해론』,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 편, 양서원, 2007. 15~45쪽.
- 하정일, 『주체성의 복원과 성찰의 서사』, 민족문화사연구소 현대문학분과, 『1960년대 문학연구』, 깊은샘, 1998. 17~24쪽.
- 한국문학연구회, 『페미니즘과 소설비평: 현대편』, 한길사, 1997.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현대사연구소 편, 『한국 전쟁 직전의 한국사회 연구』, 오름, 1998.
- 마르코 마르티니엘로, 『현대사회와 다문화주의』, 한울, 2002. 21~57쪽.
- 아니카 르메르, 『자크 라캉』, 이미선 역, 문예출판사, 1998. 236~269쪽.
- 에드워드 사이드, 『오리엔탈리즘』, 박홍규 역, 교보문고, 2007.
- 에드워드 사이드, 『문화와 제국주의』, 김성곤·정정호 역, 도서출판 창, 2002. 19쪽.
- 에마누엘 레비나스, 『시간과 타자』, 강영안 역, 문예출판사, 2001.

3. 논문

- 김복순, 『1950년대 여성소설의 전쟁인식과 ‘기억의 정치학’』, 『한국여성문학연구』 10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3. 12. 32~68쪽.
- 김양선, 『전후 여성문학 장의 형성과 여원』, 한국여성문학학회, 『여성문학연구』

18호, 2007. 12. 61~91쪽.

나병철, 『여성 성장소설과 아버지의 부재』, 『한국여성문학연구』 10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3. 12. 183~214쪽.

송인화, 『1960년대 여성소설과 ‘낭만적 사랑’의 의미』, 『여성문학연구』 11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4. 6. 221~250쪽.

4. 기타

야후 백과사전(<http://kr.dictionary.search.yahoo.com/search/dictionaryp>)

Abstract

The Birth of "We" Getting over The "Differences"

— Focusing on Ui-jeong Kim's Voice

Seo, Yeon-ju

It is in the 1960s when woman writers appeared to reveal a variety of voice. This paper pays attention to a woman writer, Ui-jeong Kim who had constantly opened out her works until the mid-1990s since she took the rostrum in 1961. Considered as a feminine formation novel, "Voice", which would seem to represent the inclination of her works, is a story of a woman searching for an authentic voice of the subject in the middle of the Korean War. Especially, the point to spotlight in this work is that the writer views the situation of the Korean War as a circumstance mixed with diverse cultures. She asserts that while recognizing the "differences" within such a multi-cultural condition, a subject out of the boundary would be come into existence and the boundary would be broken by disparate aspects, ideas, and nationality, harmonizing them at the same time. Such a consciousness of a writer is deemed as a new place to be a feminine substitute overcoming an ideology. That's because the acknowledgment of the multi-cultural "differences" and the practice of "humanity" make it possible to constitute "we", "reflective solidarity". Consequently, it is noteworthy that what "Voice" exhibits to us is the originality of Ui-jeong Kim, which is being differentiated from the cognizance displayed in the other works dealing with all the wars by the time.

Key words : literature in the 1960s, Korean War, feminine formation novel, multi-cultural differences, humanity, a subject out of the boundary, reflective solidarity, feminine substitute

- 본 논문은 4월 30일에 접수되어 5월 11일부터 27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5월 30일에 게재 확정되었음.